



오늘의 말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8장 18절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2 통일선교 칼럼 | 5 청소년숲 여름수련회 | 10 교회사용설명서 |
| 3 청년부 통일선교주간 예배 | 6 필리핀 문탈반 선교 | 10 주방부 단합회 |
| 4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 7 (사)섬김과나눔 사역 | 11 십자말풀이 |
| 4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 | 8-9 양육클래스 후기 | 12 선교 파송 소감 |



비전트립을 앞두고...

최민기 집사 / 2교구

주님,
우리는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 속 깊이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할 때마다
당신의 손길을 느끼며
설레입니다.

낮선 땅,
미지의 사람들,
그곳에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빛이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준비가
당신이 계획하신 큰 일에
어떻게 쓰일지 기대감에 부풀니다.

준비 과정 속에 숨겨진
당신의 계획,
모든 순간 속에
당신의 사랑이 깃들길,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당신의 영광이
빛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떨림과 설렘이 교차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작은 씨앗이
당신의 나라에서
꽃 피우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여정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고
일상 속 선교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북향민 청년들의 특별함과 평범함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

많은 북향민 청년들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는다. 대개는 숨기며 살아간다. 먼저 밝히는 사람은 소수다.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봤자 손해일 뿐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구경꾼에 둘러싸이는 듯한 경험은 예사이고 질문 폭탄을 받기 일쑤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북향민을 만나는 경험이 새롭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북향민이 5,200만 인구 중에 3만 5천 명이므로 겨우 0.06%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북향민 관련 일을 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라도 해 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뉴스에서나 북향민을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북향민을 직접 만나게 되면, 자연스레 고향이 어디냐, 어떻게 탈북했냐 질문을 던진다. 질문하는 사람은 만 남부터가 흔한 일이 아니지만, 북향민에게는 그런 일이 늘 있는 일이다. 게다가 간단히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어서 피로감이 생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차라리 출신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다. 게다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업에서, 생업에서, 취업에서, 관계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실제로 어린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북한 출신 학생들만 다니는 대안 학교로 전학하기도 한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원만한 교우 관계를 보이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알게 모르게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 개인에 따라 다른 문제라 함부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겉보기에 문제없는 ‘학우 관계’는 유지해도 ‘찐친’의 관계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이야기다. 남한 출신이나 북한 출신이나 서로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계심’이 있는 것일까?

생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이어진다. 우선 이력서에 ‘태어난 곳’ 항목에 선뜻 ‘북한’이라고 적어 넣을 수 없다. 적어 봤자 업무 역량과는 상관없이 흠칫거리지만 될 뿐이다. 인사 담당자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도 ‘북한 출신’이라는 이력이 회사에 필요한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 북한 연구나 북한 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자체가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시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취업이 곧 생존인 북한 출신 청년들은 당연히 이력서에서 가능하면 ‘북한’이라는 말을 뺀다. 나는 한때 한국 사회의 치열한 취업 생태계를 허투루 보고, 순진한 마음으로 이력서에 딱하니 ‘북한 출신’이라고 기록하거나 누가 봐도 북한 출신임이 드러나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했고, ‘광탈’(빛의 속도로 탈락)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력서에 출신 부분을 지웠더니, 적어도 서류 전형까지는 어렵지 않게 통과하는 것을 경험했다. 취업 시장에서 ‘북한 출신’임을 밝히는 것은 곧 ‘광탈’을 의미한다.

의도치 않은 낙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북한 출신임을 왜 굳이 밝히는 거냐고, 처음부터 안 밝히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냐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출신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밝혀지며 일종의 ‘낙인’이 된다는 게 문제이다. 이력서에서 고향을 묻지는 않지만 출신 고등학교는 기입해야 한다. 거기에 북한 학교나 또는 검정고시 학원 이름이 들어간다. 차마 거짓을 적을 수는 없어서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채용 담당자가 그 이유를 물어본다. 그렇게 고향과 출신이 밝혀지는 것이다.

여차저차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 문을 통과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동료들과의 문제가 있다. 높은 경쟁을 뚫고 취직해도, 아는 사람

의 소개로 일을 시작해도, 일터에서 겪는 문제는 대체로 비슷했다. ‘출신’ 때문에 겪는 오해와 편견들,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북향민들은 퇴사나 이직을 강요받게 된다. 이들의 근속 기간은 일반 남한 사람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장년 세대일수록,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될수록 짧다. 북한식 말투와 습관들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대화 방식과 문화 차이 때문에 직장 동료 또는 상사와 잦은 갈등을 겪는다. 억울하게도 대부분의 문제는 오해와 편견 때문에 발생한다. 업무 역량이나 숙련도로 인한 갈등이야 출신과 상관없이 어느 현장에서든 생길 수 있다. 일 못하면 혼이 나거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말투, 북한 출신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등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갈등도 크게 키우곤 한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결국 관계는 어려워지고 쌍방간의 신뢰에 문제가 생겨 결국 북한 출신이 퇴사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출신’때문에 상대방을 다른 잣대로 대하는 것은 분명히 편견이며 차별임에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또 처음에는 출신에 대한 편견이 없더라도 업무 중 생기는 작은 실수를 출신과 연결해 확장 편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거 봐. 북한에서 와서 그래”, “북한에서 와서 그런지 잘 몰라”와 같은 말들이다. 이런 모습은 언어 자체가 다른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일상과도 닮아 있다.

정체성, 당당한 상처

우리는 종종 ‘나답다’, ‘너답다’라는 말을 한다. ‘~답다’는 말은 어떤 ‘성질이나 특성 또는 자격이 있음’을 뜻하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흔히 ‘너답다’고 할 때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과 특징이 잘 나타날 때, 즉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잘 나타날 때 이런 말을 한다. 사람들은 대개 정체성을 숨긴 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잠깐은 숨길 수 있고, 스스로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도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투가 어색하고 살아온 삶과 문화적 경험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도 금방 어색해질 수 있다. ‘너’와 ‘나’가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것이지만, 아쉽게도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경우는 대부분 서양 출신 외국인들과 함께 있는 경우다.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애써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북향민 청년들은,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일수록, 자신을 숨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평범’해지고자 애쓴다. 중국 땅에서는 잡혀가지 않으려고 정체성을 철저히 숨겨야 했는데,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하게 살려고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다. 정체성은 벗어 던질 수 없는 고유한 것임에도 많은 북향민 청년들은 오해와 편견이 귀찮고 짜증이 나서 ‘탈북’정체성을 숨긴다. 이처럼, 북향민들에게 대체로 ‘탈북자’라는 정체성은 불편한 것이지만, 내가 아는 어떤 이들은 이 정체성 때문에 더욱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혹은 악착같이 살아간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탈북’이라는 경험과 그 정체성이었다. 비록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는 자주 사회적 약자, 보호의 대상,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북향민들은 모두 참혹한 생존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통과하고 이겨낸 것으로, 내게는 이 정체성 자체가 용기를 낼 힘을 주었다. 북향민은 더 당당해져도 괜찮다. 사회적 시선과 편견은 극복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극복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조경일 성도 / 너나들이부

이 글은 기윤실 <좋은나무>의 기사를 허락을 받고 전재한 것입니다. (<https://cemk.org/36192/>)

통일 선교를 위한 Wave Maker들의 ‘Make-us: 이해, 공감, 소통’사역

6월 16일, 청년부에서는 통일선교주일을 맞아 ‘Make-us : 이해, 공감, 소통’의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탈북자 출신인 김권능 목사를 강사로 예배를 드린 후, 글로리웨이브팀과 통일선교팀이 준비한 너나들이 청년과의 토크콘서트와 북한 음식 체험이 이어졌다. 이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과 통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윗동네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래·윗동네 청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북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청년들이 서로 내용에 대해 공유하면서 청년들이 윗동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지만 통일 선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또한 최신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윗동네 청년들의 삶과 모습이 궁금했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져 올해 사역을 계획하면서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습니다.

윗동네의 삶에 대해 최신 정보를 얻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청년부 내에 있는 통일선교팀을 통해 너나들이 예배에 나오는 윗동네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윗동네에서의 삶과 현재의 삶의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데이트 등 남한 청년들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신앙, 탈북과정, 경제 등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결국 청년이라는 시기에 고민하는 내용들이 매우 유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조차 분단된 지 70년이 가까운 지금 남

한의 청년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서 존재하던 부분을 어떻게 좋게 전달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부분을 글로리웨이브팀이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귀여운 리플릿으로 만들어 주고, 서로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또한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정보와 문화 교류만을 통해 이들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세상 속에 Wave Maker가 되기 위해 '우리가 되어야 함(Make-us)'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통일이라는 거창한 주제와 신념적 차이 극복보다 서로를 알기 위해 힘쓰고 공감할 수 있길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길 이라는 이 기도가 윗동네에 닿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경태 청년 / 23기, 글로리웨이브팀 팀장

작년 12월, 저는 김기연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당시 휴면상태였던 청년부 통일선교팀에 팀장으로 팀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아랫동네 청년으로는 저와 19기 성원오빠가 너나들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해왔지만 주 1회만 얼굴을 보는데 그마저도 청년부 예배를 위해 중도에 나가기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윗동네 청년들과 서로를 잘 알아간다는 느낌이 많지는 않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팀장으로서 너나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아랫동네 청년들 수가 적고 통일선교팀 팀원도 충원이 쉽지 않은 점도 때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글로리웨이브팀 이경태 팀장의 연락으로 청년부 통일선교주일 행사 준비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번 청년부 통일선교주일은 사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너나들이 청년회장인 지향자매가 토크콘서트 패널로, 또 리플릿 자문으로 섬겨주셨고, 이경태 팀장과 함께 셋이 만나 함께 식사하고 회의하면서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향자매의 이야

기를 들으면서 6개월간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서로 잘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당일, 하루에 예배를 두번 드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깨고 지향자매도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은 너나들이 청년들이 함께 5부 예배에 참석해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때 혼자 앉아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너나들이 식구들이 하나둘씩 옆에 앉아 주셔서 내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윗동네 아랫동네 청년들 함께 김권능 목사님 설교도 듣고 북한 간식도 먹고, 토크 콘서트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소 뜸해진 너나들이 예배와 청년부 예배 간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 뭉클했습니다. 많은 청년부 친구들이 유익하고 즐거웠다는 덕담도 해주었고 통일선교주일 이후 통일선교와 북음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로부터 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연락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통일선교주일을 위해 힘써주신 정구민 목사님, 김권능 목사님, 경태, 글로리웨이브팀 감사합니다.

양수민 청년 / 23기, 통일선교팀 팀장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믿음의 사람 나예요! - 아브라함편

2024년 유아숲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작년 다윗 편에 이어 “**믿음의 사람 나예요! -아브라함 편**”을 주제로 성경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여 나아간 아브라함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만

나게 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성경학교 교육 목표대로 1)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꼭 믿는 믿음의 어린이** 2) 하나님의 말씀에 **네네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함께 자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아숲 커리큘럼에 따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담은 **연극 설교**와 기쁨으로 함께하는 **찬양 축제**, 흥미진진한 **대그룹활동**과 **센터학습**, 여름성경학교 성경 이야기를 담아낸 **아브라함 스토리북**, **어린이 활동 교재**를 정

성을 담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많은 유아숲 친구들이 참여하여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남은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총괄



■ 2024 성경학교 일정

7/13 토요일			
09:30-10:00	교사경건회 및 준비	B1 중예배실 / 교사전체	
10:00-10:30	등록	본당 1층 로비 / 포토존 이용	
10:30-11:30	찬양축제 연극설교 축복의 시간	유아숲 전체 / B1 중예배실	
11:30-12:30	점심식사	아기부 부서실 / 영아부 소년부실 유아부 부서실 / 유치부 식당	
12:00-12:30	아기부 대그룹활동	네네, 순종해요- 아기부실 (축복 놀이 영역)	
12:30-13:10	영아부 대그룹활동	네네, 순종해요- 3층 소년부실 (축복 놀이 영역)	
12:30-14:00	유아부·유치부 센터학습	센터① 반짝반짝 약속해요 (만들기 영역) 센터② 네네, 순종해요 (체육 영역) 센터③ 곡곡 기억해요 (과학·미술 영역) 센터④ 유아숲 여름 영화관 (이야기 영역)	
14:00-14:15	부서 광고 및 인사	14:15 귀가지도	

7/14 주일			
예배	주일 각 부서 예배시간	1부: 9시	2부: 11시
아기부 활동	반짝반짝 약속해요 (몸을 놀이 영역)	아기부실	
영아부 활동	반짝반짝 약속해요 (미술 영역)	영아부실	
유아부·유치부 활동	아브라함 스토리북 (이야기 영역)	유아부실·유치부실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

SOS! 라파 구조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SOS! 라파 구조대! (출15:26, 사53:5, 살전 5:23)'라는 주제로, 죄로 인해 창조질서가 무너지고 아픔과 고통이 남겨진 세상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치유를 배우게 됩니다.

유년부(초등 1~2학년)는 7. 27(토)~28(주일), 무박 2일을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초등 3~4학년)는 7.26(금)~28(주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홍천 가람리조트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진행됩니다. 소년부(초등 5~6학년)는 7.26(금)~28(주일), 1박 3일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라파를 만나며, 서울지역 기독교 역사탐방과 기독교 뮤지컬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유소년숲 EM(English Ministry)은 '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Rom. 5:10)'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 빠지는 어린이로 세우고자 7.20(토)~21(주일), 24(수), 무박 2일을 일정으로 주

님의교회에서 VBS(Vacation Bible School)가 열립니다.

유소년숲의 모든 여름사역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이상훈 목사
유소년숲 총괄



청소년숲
중등부 여름수련회

팝콘 오락실 - 피스캠프, 홍천편

홍천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용사즈의 예측불허 놀이 대모험

청소년숲 팝콘트리 중등부는 7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팝콘 오락실’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홍천에 있는 가람리조트로 여름 캠프를 떠납니다. 2024년 청소년숲 표어, ‘가치 놀자 1419, peace maker’의 연장선으로 중등부 친구들(팝콘이들)이 팝콘 오락실에서 같이 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놀이’, 이해관계도, 경쟁도 없는 ‘놀이’를 통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고, 몸과 마음과 인격이 건강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 팝콘이들과 ‘놀이’를 통해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곁에 있는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줄 세우기’로 긴장감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우리 팝콘이들이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어 하나님과 잘 놀고, 이해관계를 떠나 친구들과 웃고 즐기며, 삶을 놀이로 대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행복과 평화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팝콘이들과 ‘팝콘 오락실’이라는 놀이의 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명 나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함께 놀며, 소통함으로 하나님-나-친구-세상과 관계를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팝콘트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맛보고, 행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혜원 목사 / 중등부



청소년숲
고등부 여름수련회

잃어버린 P를 찾아서

청소년숲 비전트리 고등부는 7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잃어버린 P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홍천에 있는 가람리조트로 여름수련회를 떠납니다.

‘니모를 찾아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와 같은 모험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모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움에 맞서야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설렘을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희노애락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매순간 모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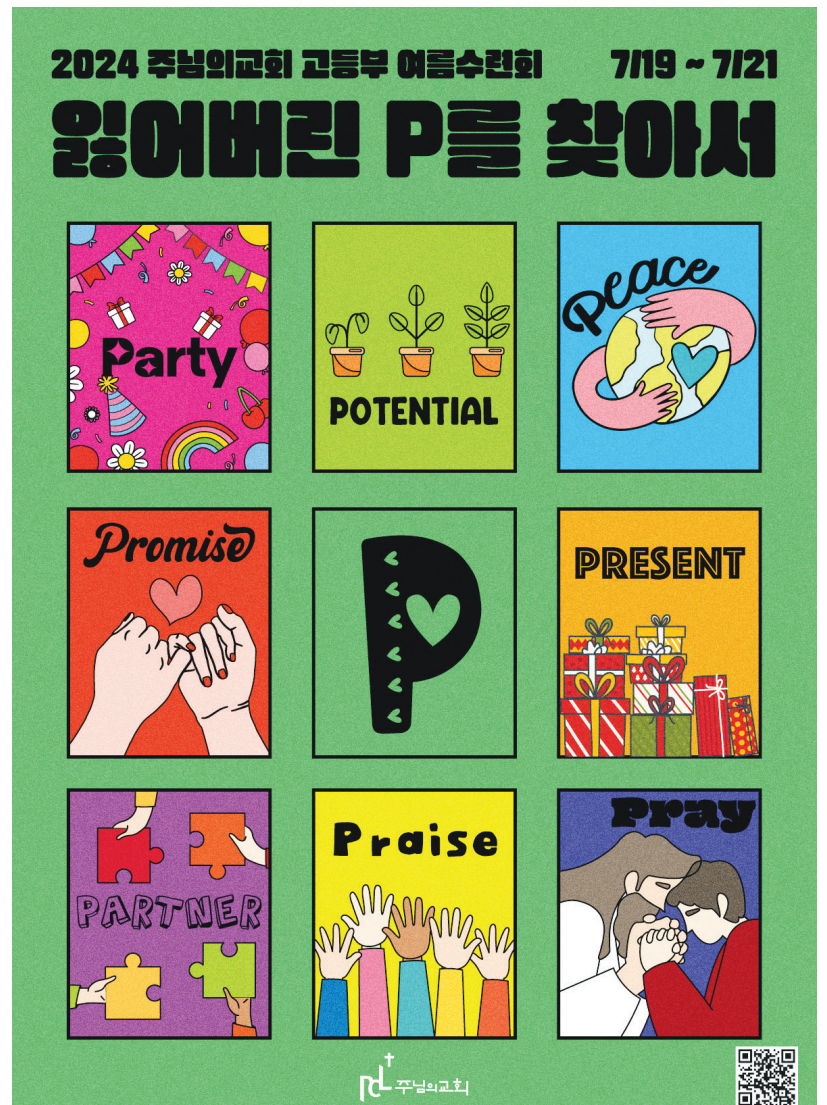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의 여정 속에서 발견하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삶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가득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모험 참가자들은 함께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며,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모험자들은 마음 깊이 오늘 하루 숨 쉬며,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가 기적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다녀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김계원 전도사 / 고등부



해외선교위원회
필리핀 몬탈반

필리핀 몬탈반 LHCA 학교 교원 연수

지난 6/22(토), 필리핀 몬탈반에서 사역하시는 이인로협력선교사와 LHCA(LIGHT OF HOPE CHRISTIAN ACADEMY) 학교 교사, 웅과 니까가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입국했다. 해외선교위원회는 선교지의 미션스쿨 교사들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초등,중,고등학교를 탐방함으로써 선교지의 미래의 리더들을 양성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 미래와 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교원 연수는 6/22(토)~27(목)까지 5박6일간 진행되었고, 1) 학교 시설 탐방, 2) 학교 특색 프로그램 소개(예:정신여고 노래선교단 교실 방문 및 소개 등) 3) 방문자의 요구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원 연수에 동행한 이인로선교사는 “이번에 너무 큰 감동과 행복한 시간으로 섬겨주신 주님의교회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목사님,전도사님들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왔습니다. 웅과 니까에게는 평생 기억될 사랑과 LHCA 학교에도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며 더큰 꿈을 잉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해왔다. 해외선교위원회

[교원 연수 일정]

6/22 (토) : 인천공항 입국

6/23 (주일) : 청소년숲 연합예배설교(이인로선교사)

3부예배 인사, 해외선교위원회 환영 모임

6/25 (화) : 세종초등학교(사립,기독교), 안동교회 방문

6/26 (수) : 강빛유초중이음학교(공립,혁신), 강명초등학교(공립,일반), 양화진 방문

6/27 (목) : 정신여자중고등학교(사립,기독교)

- 정신여중 채플 참석(이인로선교사 축도)

- 정신여중 시설 탐방 및 학교 소개

- 정신여고 시설 탐방 및 노래선교단 방문



청소년숲

필리핀 몬탈반 선교를 위한 후원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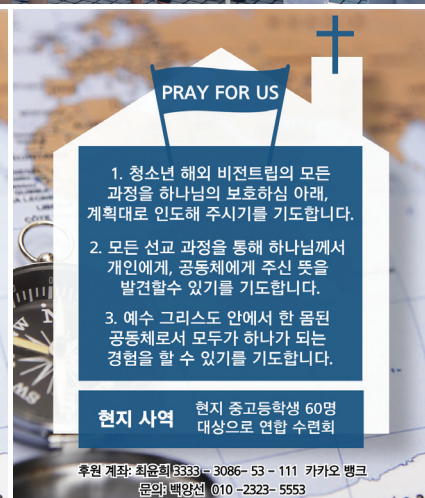
<청바지> 청!소년 비전트립을 위한, 바!자회, 지!금 여기

청소년숲은 지난 해에 이어, 8/4(주일)~8/8(목)까지 4박5일 간, 몬탈반 LHCA학교로 39명(학생 24명, 교사 12명, 교역자 3명)의 가족들이 비전트립을 떠난다. 필리핀 청소년들과의 신앙수련회, 예배 사역, 마을 feeding 사역 등을 준비하며, 사역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16(일), 청소년 비전트립을 위한 후원 바자회, <청바지>('청소년 비전트립을 위한, 바자회, 지금 여기')를 개최하였다. 이 날, 07:30~15:30 까지 김마리아 회관 입구에서 진행된 바자회에는 수제 패션후르츠청, 더치커피, 드립백, 필리핀과자세트가 판매되었고, 진행되는 시간 내내 청소년과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비전트립을 응원해주기 위한 많은 교우님들의 사랑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고등부 회장은 “보내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고백하며, 하나님의 선교는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보냄을 받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기도로, 후원으로, 동원으로, 마음과 정성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이루는 공동체 전체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청소년숲 필리핀 몬탈반 비전트립을 통해, 한 개인을 넘어 청소년숲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게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들으며, 생명 사랑과 생명 살림의 사역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몬탈반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오기를 기도한다.

청소년숲 가족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양선 전도사 / 어와나 트렉·저니



(사)섬김과 나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홀몸어르신과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의 안전돌봄 복지망

1990년에 개관하여 올해 33년이 된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섬김과나눔이 수탁하여 마천1동, 마천2동, 위례동 주민들의 복지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우리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 및 지역 특성(초고령화,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가족기능약화, 마천4권역 재개발)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복지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령의 홀몸 어르신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돕는 "건강밥상 공동체"

아침 8시부터 복지관 로비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인근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로 매일 운영되는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약 120여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복지관에 출근하십니다. 일찍 오셔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한나절을 보내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 식단으로 준비된 점심을 드시고, 사회복지사들이 진행하는 인지능력 강화 프로그램,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중행사로 봄가을에 나들이도 가시고 팔순, 구순의 어르신들께는 자식들의 빈자리를 채워서 수연잔치를 축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 어르신의 평균 연령이 80대 중반으로 긴 세월 가족들의 돌봄보다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과 더 친밀하게 지내셔서 어르신들께 복지관은 또 하나의 집과 같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중장년의 좋은 이웃 : "빼꼼이웃"과 "느슨한 만남"

마천동은 재개발이 임박한 지역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기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하, 반지하 노후된 집들의 도배와 장판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를 비롯한 사회로부터 고립된 주민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고독사 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복지관에서는 4년 전부터 "고독사 예방,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상점들로 구성된 "빼꼼이웃 발굴단"을 통해 동네를 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주민 및 상점들에 홍보하여 고립가구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립된 주민들이 사회와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에 한 명 한명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만의 욕구대로 천천히 "느슨한 관계-느슨한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고립가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10평짜리 "우리동네거실"을 오픈합니다.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작은 공간을 임대하여 고립가구 주민들과 함께 그 공간을 꾸미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거실, 모두의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천1동과 마천2동은 중장년 1인가구 주민들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함께 하는 동아리, 운동 등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동아리 등등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친구들이 생기고 함께 시간과 삶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연결하여 주민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의 봉사활동을 창출하게 하는 코디네이터

지역에는 역량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작은 규모의 모임을 만들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비슷한 동기를 가진 주민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뿐 아니라, 주민 및 어려운 분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여 마을 축제 등에서 커피나눔을 하는 "마우스", 아로마 활용, 풍선아트, 캘리그라피를 배워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하모니", "맘이음", 취약 탈북민들을 돕는 탈북 엄마들의 모임 "빛나리", 북한 음식 나눔과 탈북민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남북한 주민모임 "자체발광그녀들"등등 여러 팀들이 멋지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섬김과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더 많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섬김과나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양육클래스
소감문

봄학기 양육클래스 소감

양육클래스 | 사도행전 정독(바울의 하나님의 선교)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하다가 난임으로 인해 올 한 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양육클래스는 신청해서 참여하였지만, 일상으로 회복된 이후 직장생활 일정으로 인해 수강하지 못해 아쉬워하다 휴직 중 좋은 기회를 잡아 이대혁 목사님의 양육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양육클래스는 특별히 저의 시어머니이신 사랑하는 이정미 집사님과 어머니의 겨자씨 분들과도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 바울 서신 강의부터 이대혁 목사님의 양육 과정을 함께하신 어머니께서 강의가 너무 좋고 은혜가 되며 성경을 보는 눈이 뜨인다고 강력 추천하셨던 기억에 여러 과정 중 고민 없이 이대혁 목사님의 과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 깊숙하게 묵상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성경 전체, 즉 구약과 신약의 개관과 관련된 강의부터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배운 내용이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앞 글자를 따서 재미있는 문

장을 만들어서 알려주시거나 음이나 간단한 손짓을 넣어 노래처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며 기억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밝은 에너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순간을 진행해 주셔서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따라가는 내용을 배울 때에는 사도행전 본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바울 서신,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다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성경 내증적인 방법으로 성경에 적힌 토씨 하나의 내용까지 넘어가지 않고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며 여러 양육 과정에 참여하였지만, 그간 잘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과 이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말씀들이 입체적으로 살아나 이해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양육클래스를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있는 곳과 세계 선교를 위해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어떠한 핍박이 와도 믿음을 놓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소정 성도

이번 학기 이대혁 목사님의 사도행전 정독 시간은 놀랍고 획기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개관을 비롯한 강의 전체의 청사진(표, 도식, 그림)을 설명하시며 첫 수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가며 성경 속의 인물, 지명, 사건, 연도 등을 여러 서신서들을 탐색하며 새롭게 찾아가는 성경 내증적 방법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에서 탈피하여 통전적으로 읽는 기회와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양육 수업 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렵게만 느껴지던 사도행전이 쉽게 다가왔습니다. 수업은 흥미진진하고 심도가 있었으며, 성경 내용을 압축적으로 외우게 하시는 목사님의 강의 방법이 차별화되어 날마다 거룩한 기대감 속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복습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경을 탐독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나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이 생기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내 마음에 작동하며,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 수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감을 사도행전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붙잡힌 사도 바울의 풀타임 선교 여정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지, 2차 선교지, 3차 선교지에서의 유대인 및 이방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많은 장애물들이 곳곳마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법정까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육클래스를 통해 복음의 참된 의미와 실행 일치를 항상 깨닫게 해주시려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이대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윤정현 집사

양육클래스 | 신앙의 기초 세우기 II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양육클래스를 신청하고 매주 게으른 나와 의 영적 싸움을 시작했다. 이번 수업이 있던 화요일이면 유난히 비가 자주 왔다. 수업을 빼먹기 아주 좋은 핑계가 있었지만 지난 학기의 감동을 기억하며 고민하지 않고 양육클래스의 자리로 나아왔다. 매순간 열정과 사랑을 담아 수업을 준비하시고 반갑게 성도들을 맞아 주시는 목사님의 진심도 잘 전달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화요일이 기다려졌다.

어떤 날에는 찬양이, 어떤 날에는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짓게 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다. 수업을 듣는 것으로 끝내기 아쉬우니 하나씩 실천할 방법들을 찾아보며 훈련해 보기로 했다. QT와 필사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가끔은 침묵해 보며 나의 기도 골방을 찾아 기도 시간을 정해 보는 것을 훈련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를 구하며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겨자씨 식구들과 사역하는 봉사

팀 속에서 오늘도 사랑을 배워간다. 무엇보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훈련을 하며 오늘도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꺼이 훈련하기를 선택할 것이다.

수업시간마다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남는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되 신앙의 훈련은 힘들게 하라시던 말씀이다. 오늘도 나의 신앙을 조금 더 성장시키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양육클래스 마지막 수업 날 아쉬움과 감사와 감동으로 눈물이 범벅이 되었던 그 순간을 아마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다.

신정미 집사



양육클래스 | 신앙의 기초 세우기 II

매 학기마다 한 강좌 이상의 양육클래스를 꾸준히 듣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가 한시영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시는 마지막 양육클래스라서 만사를 제쳐놓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목사님 큐티 나눔이나 설교 말씀이 주는 울림이 컸고 두고두고 묵상이 되는 터라 강의 시작 전부터 기대가 많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양육클래스를 들으며 느낀 것은, 우리 교회의 양육클래스는 주제도 다양하고 수준도 높고 또 성도들을 향한 그 열정은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여러 채널을 통해 유명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 부 목사님들의 양육클래스의 가치는 말씀 내용 자체나 또 진실함, 열정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는 비견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양육클래스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10가지 주제로 10번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 강의 당일 아침에 강의하실 내용의 주제와 소제목들을 강의 들으러 올 때 먼저 읽어 볼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 주셨고 또 강의 후에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하여 매주 주말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매 강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바른 소비, 영적 전쟁, 감사, 절제 등등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으며, 내용이 성경 구절과 연결되어 조목조목 탄탄하였고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할 만큼 와 닿았습니다. 전체적인 진행도 찬양, 강의, 중보기도, 개인기도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장소가 지하 찬양대실이라 소리의 울림이 좋고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욱 은혜로 빛이 났습니다. 이렇게 멋진 양육클래스를 기억에 남겨 주셔서 감사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신앙의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최종경 집사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양육클래스를 듣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 무지한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오프라인 양육클래스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에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성도님들의 뜨거운 열기에 놀랐습니다. 강의 전 뜨거운 찬양과 열심으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강의와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는 자리까지, 모든 것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가왔고 줄줄 흐르는 눈물에 휴지를 챙겨가지 않은 것이 후회까지 되었습니다.

매 강의가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었고 저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8강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절제가 저에게 가장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저에게 말의 절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족한데 더 모으려고 욕심내는 제 마음에 절제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절제란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 그것을 들을 줄 알고 '그만'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다시 시작되는 양육클래스를 들어 볼까 고민이 되는 성도님이 있다면 주저없이 신청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임미정 집사

“오늘도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한시영 목사님의 인사로 양육이 시작됩니다. 유독 화요일에 비가 많이 왔지만 그 빗속을 뚫고 걸어오신 많은 분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지하 찬양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물질관을 기반으로 바르게 소비하고, 일상에서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무장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동역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 기도로 연결하고 성령의 열매 중 절제를 유념하여 권한과 말을 절제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용기와 믿음으로 교

회를 세우고 보살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10주 내내 강조된 말씀과 기도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키였습니다.

양육을 통해 오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훈련하는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깨닫는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기를 위해 의지로 결단하고 훈련반기를 다짐하며 주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며 소망합니다.

김주현 집사

직장인인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신앙심이 높은 직분자들만 참석하는 거 아닌가? 과연 10회를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의지와는 다르게 참여하고 싶어도 화요일만 되면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생기거나 제안 발표가 지방에 잡혀 참석할 수 없게 되니 역시 무리였구나 싶었는데, 마음속 깊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 가득 풍요와 벅참을 느끼게 해주시고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시영 목사님 그리고 주어진 기도제목에 따른 통성기도를 하며 가슴에서 무언가 뭉클거림과 벅참이 올라와 하염없이 흘렸던 굵은 눈물은, 한 주를 기다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언어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바르게 소비하는 그리스도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동역하는 그리스도인,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삶에 지친 작아진 마음 속에 신앙의 씨앗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 강의마다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열광을 해주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이유를 들어 행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시절을 다시 소환시켜 준 시간이었고 말씀의 귀한 열매들로 인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이끌어 안이했던 모습을 반성하며 새로이 갑옷을 입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를 다짐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차민주 집사

교회사용설명서③

교역자님들 위치 알아보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에는 김희수 담임목사와 함께 교구와 사역을 나누어 담당하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교구와 사역을 책임지는 부교역자를 흔히 ‘부목사’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특화된 사역이나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전임목사와 준전임목사, 전임전도사와 교육전도사가 있으며, 파송목사와 전도목사 등 대외에서 활동하는 교역자도 있습니다. 이 많은 교역자를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주된 사무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용 방법

교역자 사무실은 김마리아회관 4층과 5층에 있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향해 돌아가면 나타나는 교구 교역자실에는 박주영 목사(1교구), 박민규 목사(2교구), 이종성 목사(3교구), 배윤환 목사(4교구), 윤경수 목사(5교구), 차승천 목사(6교구), 한시영 목사(7교구), 이대혁 목사(8교구)가 있습니다. 교구 교역자실에서 직진하면 왼쪽에 전임목사인 황바울 목사 사무실이 있고, 목양사역 담당인 이왕현 전도사가 있으며, 오른쪽으로 김희수 담임목사의 사무실인 목양실이 있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유소년숲, 유아숲, 청소년숲의 순서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소년숲 사무실에는 이상훈 목사(유소년숲 총괄), 강요한 전도사(유년1,2부/어와나 스팅크), 권동준 전도사(초등1부/어와나 티엔티), 이수민 목사(소년1,2부), 정지인 목사(어린이영어예배 EM), 장성식 목사(소그룹분과), 박준범 목사(양육분과, 젊은이분과)가 있습니다.

유아숲 사무실에는 이윤경 목사(유아숲 총괄), 이은솔 전도사(유아1,2부/아기정원), 김오정 전도사(아기부/어와나 커비스), 이수진 전도사(유치1,2부), 이영선 전도사(영아1,2부)가 있습니다.

청소년숲 사무실에는 임경순 목사(청소년숲 총괄, 청소년사역원), 최혜원 목사(중등부), 김계원 전도사(고등부), 백양선 전도사(어와나트렉/저니), 오성민 전도사(중등부), 김지원 전도사(고등부)가 있습니다.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왼쪽 끝까지 돌아가면 청년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청년부 사무실에는 정구민 목사(청년부 총괄), 이충만 목사(청년부/드림힐), 조수희 전도사(청년부/비전힐), 김세연 전도사(청년부/조이힐), 김지민 목사(영어예배)가 있습니다.

5층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끝까지 가면 장애인사역부와 사랑나무부 사무실과 디자인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김은선 목사(장애인사역부), 노홍주 목사(사랑나무부)가 있습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주님의교회는 창립정신과 정관에 따라, 따로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고 정신학원에 김마리아홀을 지어 기증하고 임대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 교회 공간도 넉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역자들을 위한 공간도 여유가 없으며, 서로 다른 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한 사무실 안에서 비좁게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교역자 사무실 배치에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이 상담을 할 교역자를 직접 찾아가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도 모든 교역자 마음의 크기는 정신학원 운동장만큼 넓고 넓어, 여러 교인들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함글함글



* 정확한 위치는 함글함글 454호 교회사용설명서를 참고하세요.

주방부 단합회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된 주방 사역 현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을 책임지는 주방부 단합회가 6월 29일 (토) 오후 5시에 대식당에서 김희수 담임목사의 격려사와 기도로 시작하였다.

주방사역은 특성상 한 번에 모두 모일 수 없는 사역이기에 섬김이 구성과 역할뿐 아니라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역현장에서 이번 단합회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되었다.

주님께서서 함께하시는 주방부 섬김이들과 함께함에 기쁨이 되었다.

사역자들이 직접 만든 식사 자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다. 코로나때 잠시 멈춘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시작된 주방사역은 사역자 모집도 쉽지 않았고 운영방식이나 메뉴 선택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방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 주방사역은 부서원, 2024년에 피택받고 항존직 교육 중인 피택자들과 2주간씩 지원한 교구 봉사자 등 80 여명이 새벽과 1부, 2부, 마무리로 매주 섬기고 있다.

함글함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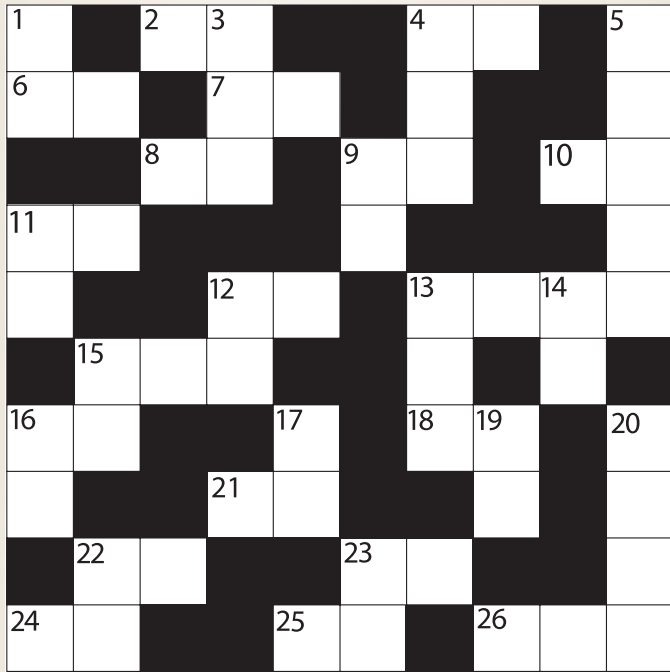


7~9월 교구별 주방사역 일정

7/7, 7/14	6교구
7/21, 8/18 (7/28, 8/4, 8/11 : 휴무)	7교구
8/25, 9/1	1교구
9/8, 9/22 (9/15 : 추석 휴무)	2교구
9/25, 10/6	3교구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요엘 편

이번 호는 <요엘> 편입니다. <요엘>의 저자는 요아스 왕 시대의 선지자 요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엘은 비참한 현실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요해질 것이라는 언약을 전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85호 호세아 편 정답



가로 힌트

2. 조직적으로 구성된 군사 집단.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 (욥 2:11)
4. 고대 페니키아의 상업 도시. 지금은 레바논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다. (욥 3:4)
6.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존재이다. (욥 3:8)
7.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대추나무의 열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대개 종려과 대추야자속에 속하는 대추야자를 뜻한다. (욥 1:12)
8.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직분.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나이가 든 원로를 뜻했다. (욥 1:14)
9.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다윗이 법궤를 옮겨 온 후부터 이렇게 불렸다. (욥 3:17)
10. 배와 함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과일. 미국을 대표하는 전자제품 회사의 브랜드이기도 하다. (욥 1:12)
11. 선택을 위해 숨겨진 표시가 있는 여러 개 중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잡는 방법. 속도가 가장 빠른 조류의 하나이기도 하다. (욥 3:3)
12. 어떤 대상을 무척 좋아하여 아끼고 위하는 마음. "예수 ○○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라는 찬송가도 있다. (욥 2:18)
13. 갈매나무목에 속하는 덩굴성 나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과일나무이며, 열매로 술을 빚는다. (욥 1:7)
15.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욥 1:15)
16.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욥 2:14)
18.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생년이 되면, 자신이 사는 곳을 등록한 카드 형태의 증명서를 받는다. (욥 1:2)
20. 용맹스러운 사람. 한국에서는 병사들을 이렇게 부른다. (욥 2:7)
22. 인간이 고기나 젖, 알, 노동력을 얻기 위해 기르는 동물. 소, 양, 돼지, 말 등을 말한다. (욥 1:18)
23.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토지, 사업.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토지나 사업을 이것이라고 불렀다. (욥 2:17)
24. 사람이 쓰기 위해 구획한 땅. 건물을 세우거나 농사를 짓는다. (욥 1:10)
25.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 덩어리. 높이와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이 있다. (욥 2:2)
26. 세례 요한이 석청과 함께 먹었던 곤충. 연예인 유재석의 별명이기도 하다. (욥 1:4)

세로 힌트

1. 군대에서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군인. 주로 사병을 의미한다. (욥 3:9)
3. 대를 이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 있으리라" (욥 3:20)
4. 예루살렘 남서쪽 해발 765m의 언덕. 뒤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욥 2:32)
5. 뽕나무과에 속하는 활엽 관목. 꽃이 속에서 피어 겉으로 보이지 않은 채 열매를 맺는다. (욥 1:7)
9.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지은 건물. '성스러운 건물'이라는 뜻이다. (욥 3:18)
11. 제사를 지내는 단. 제사장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향을 태웠다. (욥 2:17)
12. 고양잇과에 속하는 맹수.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포식 동물이다. (욥 1:6)
13. 포도로 담근 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이것을 만든 일이었다. (욥 2:19)
14. 끝이 벌어진 금관악기를 두루 부르는 말. 한국 전통 악기의 이름이었다. (욥 2:1)
15. 구약 시대 제사 방법의 하나. 제단에 올린 제물을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한다. (욥 1:9)
16. 어떤 것의 생산물. "농부들이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여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곡할지여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이 다 없어졌음으로다" (욥 1:11)
17. 무술을 쓰는 병사.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일반적인 고대의 병사들을 말하기도 한다. (욥 2:7)
19. 언어와 풍습, 역사를 함께하는 인간의 집단. 종족보다는 큰 의미로 흔히 쓰인다. (욥 1:6)
21. 산의 정상.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욥 2:5)
22. 나무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것. 잎과 꽃이 달린다. (욥 1:7)
23.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한 지방. 구약 시대에는 대개 올리브 열매를 짜서 이것을 얻었다. (욥 2:24)

교회소식

선교지로 나아가는 마음

안녕하세요. 6월 29일 중동 A국으로 나가는 김보아스, 윤룻 선교사입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교지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것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으로 인한 긴장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마지막 한 달, 6월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들었던 가족과 교회,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는 가까워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뒤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한국 음식이 그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의교회 국수가 그리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주님의교회 공예배 가운데 선포된 주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경험한 주님의 임재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들이 많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일들이 마음에서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시간과 그 때 부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_ 신명기 20:1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동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아스, 윤룻 선교사



교회일정

7/7 (주일)	성찬주일
7/13 - 14 (토 - 주일)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7/14 (주일)	정기당회
7/19 - 21 (금 - 주일)	청소년수련회
7/20 - 21, 24 (토 - 주일, 수)	EM Children Summer VBS
7/24 (수)	2/4분기 제직회
7/26-28 (금-주일)	유소년수련회

알립니다

1. 수요일예배 시리즈 설교 안내

일정 : 7/10, 17, 24

설교 : 박경수 목사(장신대 역사신학 교수)

주제 :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2.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주제 : "믿음의 사람, 나예요!" - 아브라함 편(창 12:2)

일시 : 7/13(토) 오전10:00,

7/14(주일) 각 부서 예배시간

장소 : 중예배실, 각 부서 예배실

대상 : 미취학 어린이(아기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3. 의료선교부 해외의료선교(필리핀 몬탈반) 봉사자 모집

일시 : 8/24(토)~8/27(화)

대상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문의 : 이광우 안수집사(010.7204.1578)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질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